

장애인식개선교육 우수강의안 공모전 장려작 강의안 요약서

제 목	우리는 예비장애인
수 상 자	우현정, 양철원, 최지수 (하남시장장애인복지관)
강의대상	성인 및 공무원
강의목표	<장애인에 대한 편견 및 고정관념 개선> 1. 장애의 정의 및 특성을 이해한다. 2.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한다. 3. 장애인에 대한 제도 및 법을 소개한다.

단계	시간 (총 60분)	강의내용	강의방법 (강사-성인)	강의자료 (매체/기자재)
도입	5	장애의 정의	이야기나누기	PPT
전개	20	장애의 유형 장애 유형별 행동특성 장애 유형별 보조기기 장애 유형별 에티켓	정보전달	PPT
심화	25	장애 관련 상식 퀴즈 장애인 인권 관련 법 및 제도	퀴즈 및 정보전달	PPT
정리	10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의식제고 및 정리	질문과 토의	PPT

장애인식개선교육 우수강의안 공모전 장려작 강의 상세원고

※ 본 강의원고는 2018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우수강의안 공모전(주최:보건복지부, 주관: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수상한 강의안을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일부 수정 및 감수한 것입니다.

- 제 목 : 우리는 예비장애인

- 강의대상 : 성인 및 공무원

- 강의목표 : 장애인에 대한 편견 및 고정관념 개선

- 강의자와 학습자간 학습내용의 충실화 방안
 1. 일방적 교육을 지양하고 질문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장애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
 2. ppt애니메이션 효과를 통해 전달하고 하는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3. 장애인에 대한 퀴즈를 통해 학습자가 흥미를 가지고 교육에 참여하도록 한다.

- 학습내용에 대한 효과적 활용 방안(TIP) 등 기타 특이사항
 1. 질문을 하고 학습자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제공하도록 한다.
 2. 마무리 부분에 적절한 음악 사용 가능



<도입>

PPT를 클릭하여 제목을 다같이 소리 내어 읽고 의미를 소개한다.

<시나리오>

강의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 000입니다. (소개 및 인사 나누기)

앞에 PPT 잘 보이시죠? 다같이 한 번 읽어볼까요?

(소리내어 “우리는 비장애인” 을 읽고 나면 클릭 후 ‘예’ 글자 날아 온 후 다시 한 번, 읽기)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예비장애인” 이라는 주제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TIP>

시작부터 “예비 장애인” 이라는 표현의 사용은 선천적 장애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니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도입>

목차를 보여주고 교육의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시나리오>

강의자: 오늘의 교육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의 정의를 시작으로 하여 장애유형별 보조기기와 에티켓을 알아보고, 퀴즈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장애에 대해 알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를 살펴보고 우리의 편견을 내려놓고 관점을 전환하는 순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입>

사진을 보며 각기 다른 인물들이 가진 특성을 찾는다.

<시나리오>

강의자: 앞에 사진을 보시고 이들의 다른 점을 찾아보세요.

(답변 및 호응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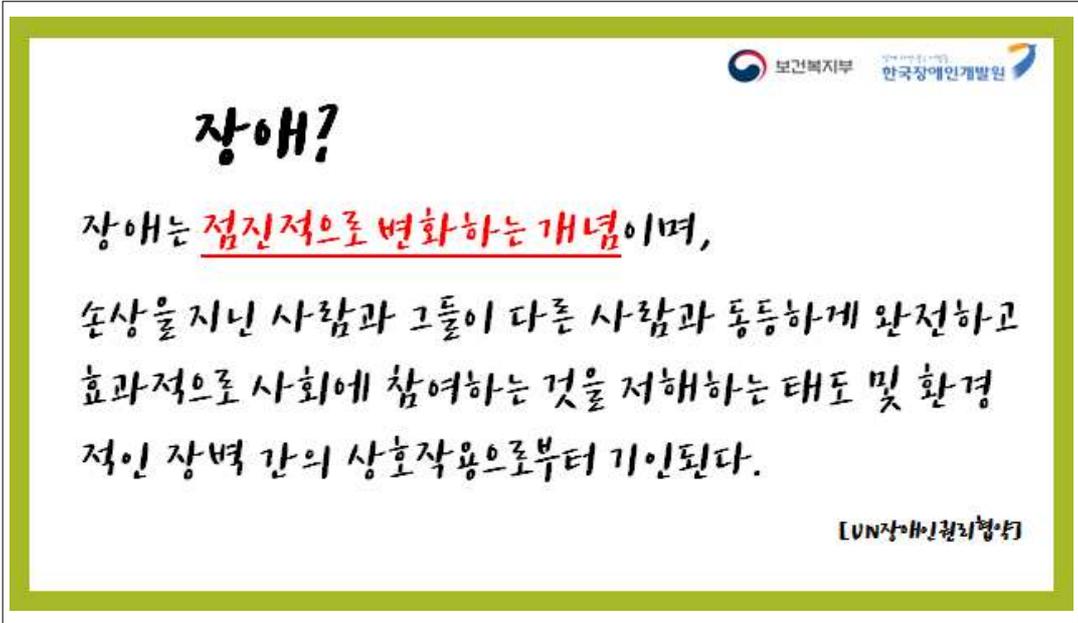
피부색? 성별? 안경 쓴 사람, 안 쓴 사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 및 호응 유도)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외모나 성격, 사고방식 모든 사람은 다 각자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도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특성과 같이 조금 다름이 있을 뿐입니다.

‘장애’ 역시, 다양한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특성 중 하나라는 의미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도입>

장애인의 개념에 대해 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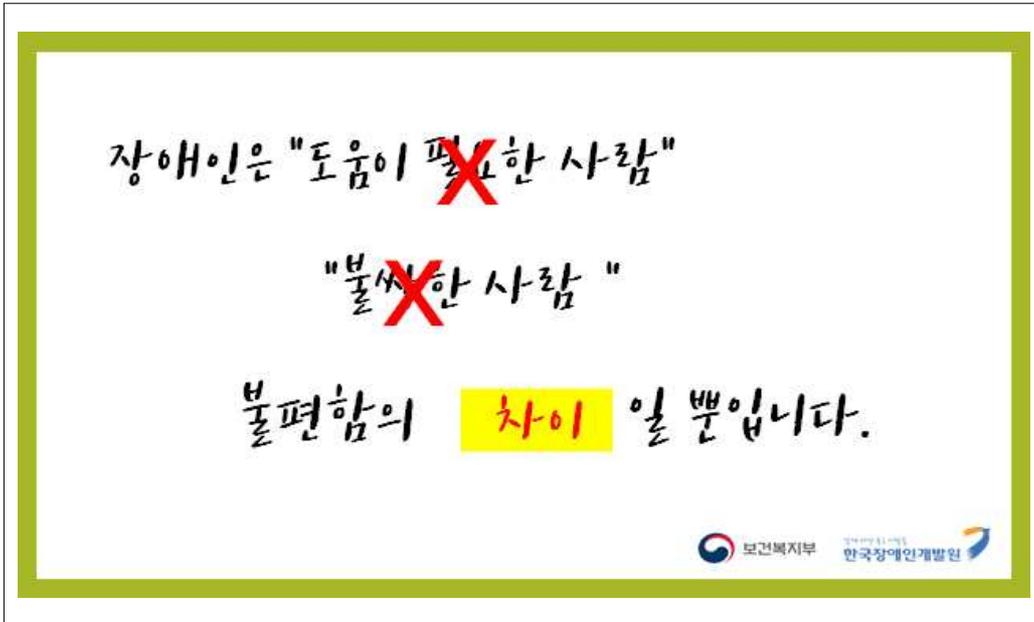
<시나리오>

강의자: 우리가 말하는 장애인의 뜻, 알고 계신가요? (답변 유도)

사전적인 정의로는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 능력이 원활하지 못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정의합니다.

하지만 UN 장애인권리협약에 의하면, 장애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며, 손상을 지닌 사람과 그 사람이 처해있는 환경적인 장벽 또는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태도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기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결국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은 개인의 장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사회의 장애(태도나 환경)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도입>

장애인의 정의에 대해 안다.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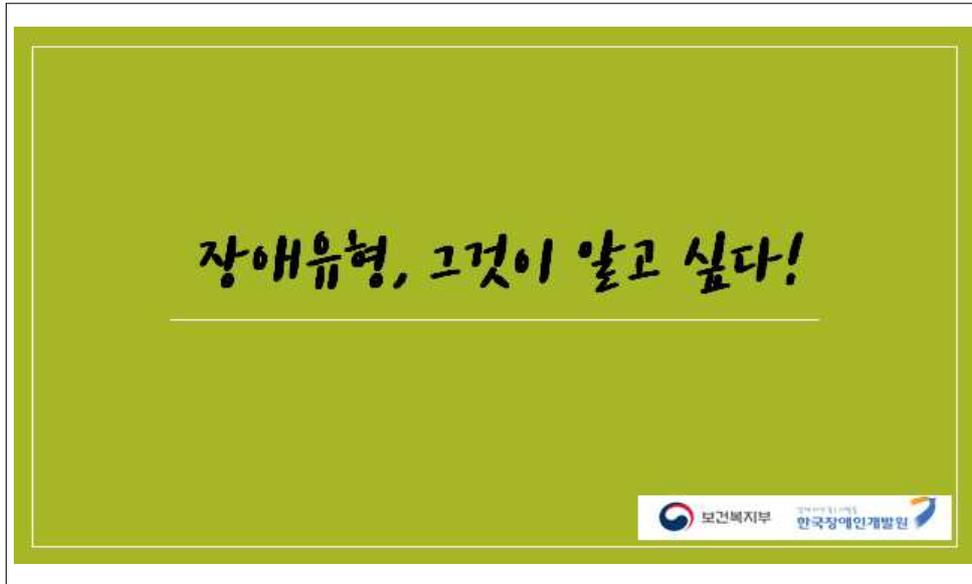
강의자: 여러분 장애인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까요?

불쌍한 사람일까요? (아니오 답변이 나올 시) 그렇습니다.

장애인은 단지 불편함의 차이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들을 일방적으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무조건적인 배려도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은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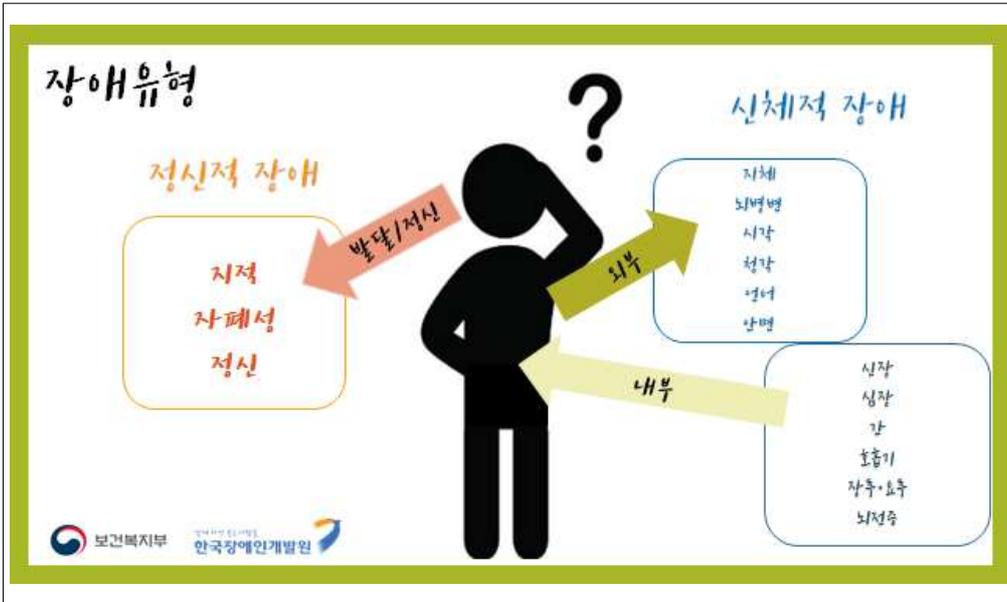
<전개>

장애 유형과 특성, 보조기기 및 에티켓을 소개한다.

<시나리오>

강의자: 장애유형, 그것이 알고 싶다!

지금부터는 ‘장애’에 대해 한 발짝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전개>

장애 유형과 특성, 보조기기 및 에티켓을 소개한다.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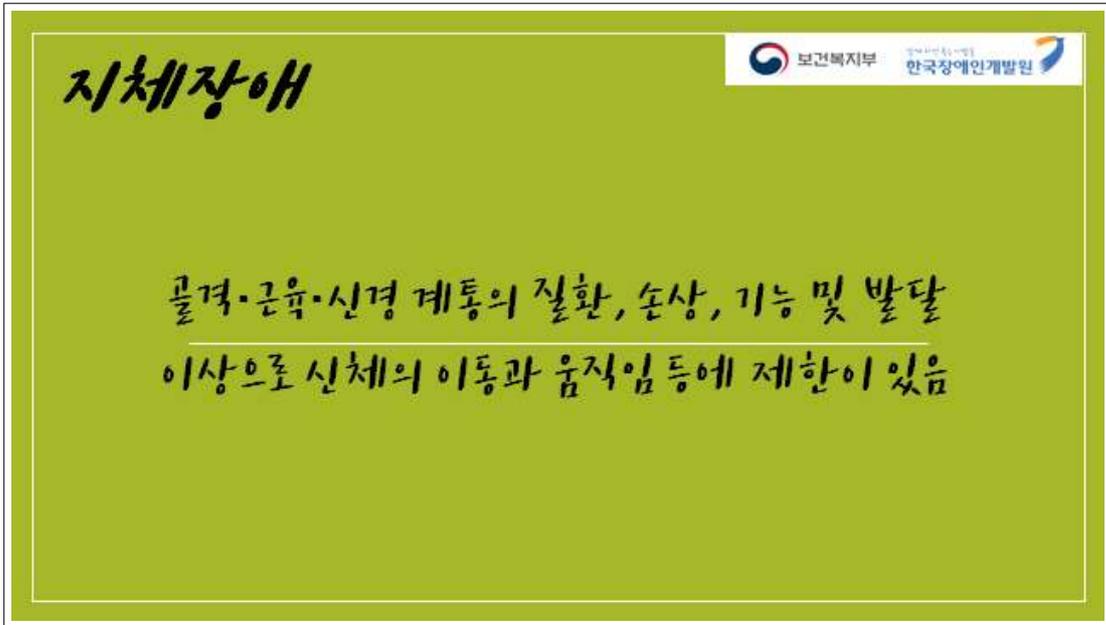
강의자: 우선 장애유형은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누어집니다. (순서대로 클릭하며 설명)

신체적 장애 중 외부기관 장애와 내부기관 장애로 나누어지는데요.

외부장애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신적장애는 발달장애와 정신장애로 나누어지는데요, 발달장애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있으며, 정신장애는 우울증, 조현병 등을 포함하는 정신장애가 있습니다.

강의자: 현재 장애유형은 총 15가지 유형이 있으며, 유형마다 등급에 따라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7월부터는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가 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좀 더 많은 장애인이 필요에 따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총 15가지의 장애유형 중 8가지 장애를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전개>

장애 유형과 특성, 보조기기 및 에티켓을 소개한다.

<시나리오>

강의자: 처음으로 지체장애입니다. 지체장애는 골격·근육·신경 계통의 질환, 손상, 기능 및 발달 이상으로 신체의 이동과 움직임 등에 제한이 있는 장애입니다. 외부장애인으로 우리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장애이기도 합니다.



<전개>

장애 유형과 특성, 보조기기 및 에티켓을 소개한다.

<시나리오>

강의자: 움직임이 불편한 지체장애인의 불편을 덜어주는 보조기기에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유도 후 클릭하여 사진 보여주기)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목발, 워커, 지팡이 등이 있는데요. 이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리가 불편한 노인분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또한 다리가 불편한 사람을 위한 자동차 보조기기인 핸드컨트롤이 있습니다. 발 대신 양손을 이용하여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기기입니다.

여러분 수동휠체어나 전동휠체어는 많이 보셨을텐데요. 스탠드형의 기립휠체어(수동,전동)는 업무환경이나 일상생활 시 일어나서 생활할 수 있기때문에 혈액순환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앞에 보이는 보조기기 외에도 지체장애인의 필요에 맞는 보조기기를 통해 신체 및 이동의 편리함을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지체장애인을 대할 때 에티켓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접근성'을 고려해주세요.

- *낮은 턱이나 계단도 큰 장애물
- *장애인 주차구역 비워 두기
- *휠체어 및 보조기구 공간 마련하기

본인의 '의사' 를 확인해주세요.

- *도움을 주기 전 꼭 상대방 의사 확인하기
- *허락 없이 보조기구 사용하거나 옮기지 않기
- *문/엘리베이터 잡아 주기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전개>

장애 유형과 특성, 보조기기 및 에티켓을 소개한다.

<시나리오>

강의자: 다음은 우리가 지체장애인을 대할 때 에티켓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체장애인들은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물리적 접근성에 대한 에티켓이 중요합니다. 예를들어, 휠체어 사용자에게는 비장애인은 쉽게 오를 수 있는 낮은 턱이나 계단도 장애인에게는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꼭 비워주세요.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주차구역이 아니더라도 휠체어 및 보조기기가 자유롭게 지나갈 수 있도록 여유로운 통행로를 마련해주세요.

그리고 지체장애인을 만났을 때 나의 생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보다 도움이 필요한지 꼭 확인해주세요.

누군가가 내 물건을 함부로 만진다면 불쾌하겠죠? (답변 유도 및 호응) 마찬가지로 지체장애인의 보조기기를 사용하거나 임의대로 옮기지 말아주세요.

또한 지체장애인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먼저 타거나 나중에 내려서 문을 잡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전개>

장애 유형과 특성, 보조기기 및 에티켓을 소개한다.

<시나리오>

강의자: 다음은 뇌병변장애입니다. 뇌병변장애는 지체장애인과 많이들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요.

뇌병변장애인은 뇌의 이상으로 인한 떨림, 경직 등 운동장애와 언어장애를 갖고 있으며 장애가 외형적으로 두드러져 보이는 장애입니다.

(클릭 후 애니메이션 ‘BUT’ 등장하면 설명) 하지만! (클릭 후)
강의자: 언어장애가 있다고 해서 지적 능력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인지적인 부분은 비장애인과 다른 점이 없습니다.



<전개>

장애 유형과 특성, 보조기기 및 에티켓을 소개한다.

<시나리오>

강의자: 뇌병변장애인은 운동장애로 몸에 떨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잡거나 대화를 할 때 불편함을 느낍니다.

(영상 시청 시)

강의자: 보신 영상에서는 손 떨림으로 인하여 혼자 식사가 어려운 뇌병변장애인이 손 떨림 방지 보조기기를 사용하여 혼자 식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뇌병변장애인의 필요에 맞는 보조기기를 사용하여 생활에 불편함을 덜 수 있습니다.



<전개>

장애 유형과 특성, 보조기기 및 에티켓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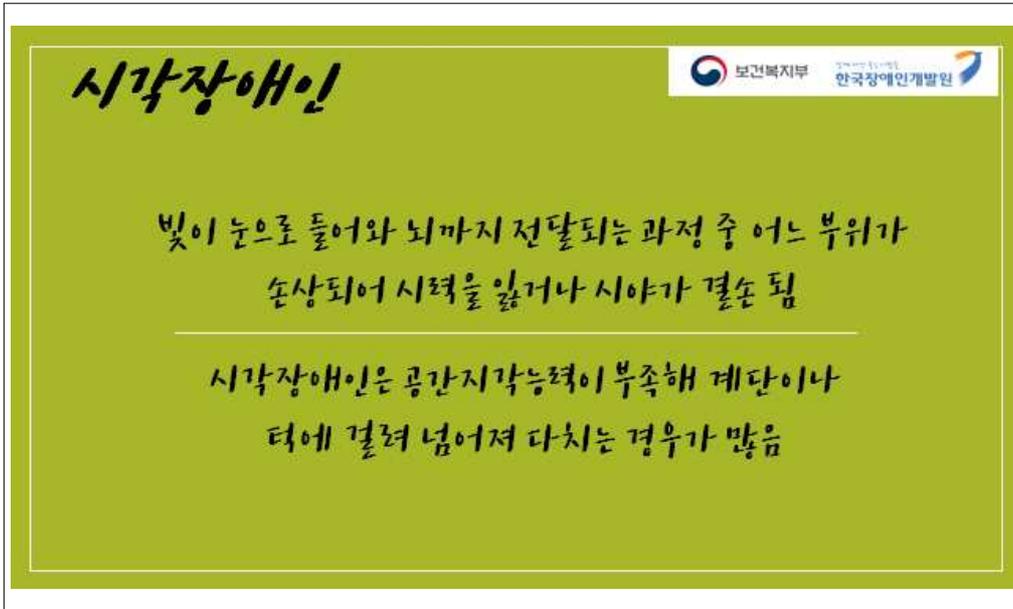
<시나리오>

강의자: 다음으로 뇌병변장애인을 대할 때 에티켓입니다.

뇌병변장애인 중에는 언어장애를 동반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뇌병변장애인과 대화중 알아듣기 어려울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어요?” 라고 요청해주세요.

강의자: 또한 뇌병변장애인이 넘어졌을 때는 보조기기를 세워줘야 하는지, 손을 잡아줘야 하는지 등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먼저 질문해주세요.



<전개>

장애 유형과 특성, 보조기기 및 에티켓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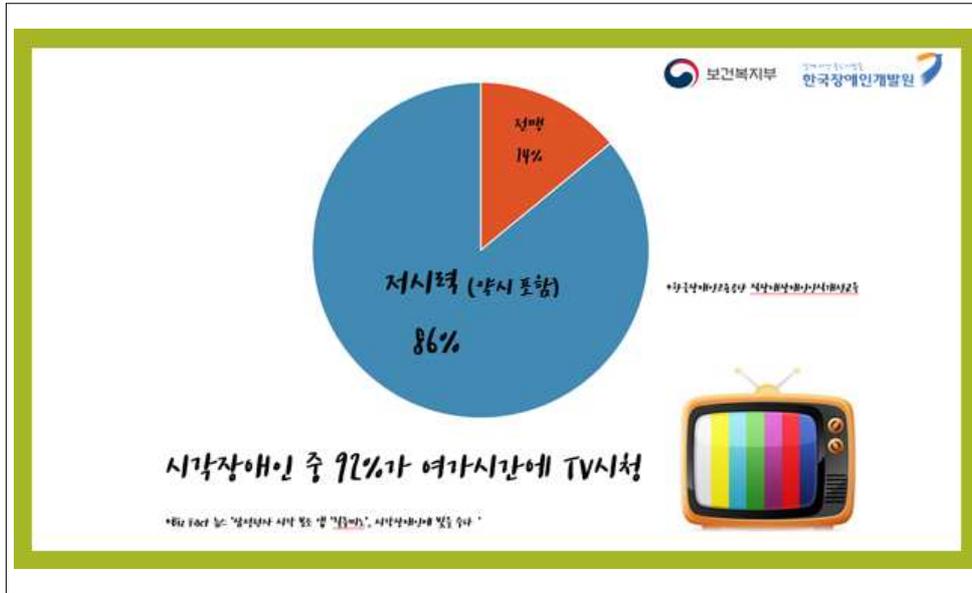
<시나리오>

강의자: 다음은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은 빛이 눈으로 들어와 뇌까지 전달되는 과정 중 어느 부위가 손상되어 시력을 잃거나 시야가 결손 된 장애인입니다.

(클릭 후 애니메이션 등장하면 설명)

강의자: 시각장애인은 공간지각능력이 부족해 계단이나 턱에 걸려 넘어져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개>

장애 유형과 특성, 보조기기 및 에티켓을 소개한다.

<시나리오>

강의자: 모든 시각장애인이 전맹은 아닙니다. 전 세계 시각장애인 중 전맹은 14%, 저시력자가 86%로 명암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클릭 후 애니메이션이 등장하면 설명)

강의자: 또한 시각장애인 중 92%가 여가시간에 TV시청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시각장애인분들도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게 여가시간을 보내신답니다.



<전개>

장애 유형과 특성, 보조기기 및 에티켓을 소개한다.

<시나리오>

강의자: 시각장애인의 불편을 덜어주는 보조기기에는 점자책, 독서 확대경, 문자를 인식하여 음성으로 전환시켜주는 공학기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주는 흰 지팡이 등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대할 때 에티켓





처음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 ☆ ☆입니다."

첫 인사는 악수와 함께 또렷한 발음으로 이름을 말해주세요!



의자에 앉을 때

위에서 밀거나 앞에서 잡아 당기지 마세요.
한 손은 의자에 다른 한 손은 책상에 닿게 해주면 바르게 앉을 수 있어요!

시각장애인을 대할 때 에티켓





계단을 이용할 때

"바로 앞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계단을 한 걸음 앞에 두고 멈춰선 다음 올라가는 계단인지 내려가는 계단인지 말씀해주세요.



좁은 곳을 안내할 때

안내하던 팔을 등 뒤로 뺐어주세요.
길이 좁음을 말하고 자연스럽게 팔을 뒤로 뺐으면 안내자는 뒤쪽으로 걸음을 옮겨 보행을 합니다.

<전개>

장애 유형과 특성, 보조기기 및 에티켓을 소개한다.

<시나리오>

강의자: 시각장애인을 처음 만났을 때 악수를 건네며 크고 또렷한 발음으로 이름을 말해주세요.

의자에 앉을 때는 시각장애인을 위에서 밀거나 앞에서 잡아당기지 마세요. 한 손은 의자에 다른 한 손은 책상에 닿게 해주면 바르게 앉을 수 있습니다.

계단을 이용할 때는 계단을 한 걸음 앞에 두고 멈춰선 다음 올라가는 계단인지 내려가는 계단인지 “바로 앞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와 같이 말씀해주세요.

또한 좁은 곳을 안내할 때는 안내하던 팔을 등 뒤로 뺐어주세요. 길이 좁음을 시각장애인에게 말하고 자연스럽게 팔을 뒤로 뺐으면 안내자의 뒤쪽으로 걸음을 옮겨 보행을 하도록 합니다.

청각장애인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소리와 말을 듣는 귀 즉 외이, 중이, 내이로 연결되어지는
청신경의 기능에 이상이 생겨 말과 음을 잘 듣지 못함

청각장애인의 불편을 덜어주는 보조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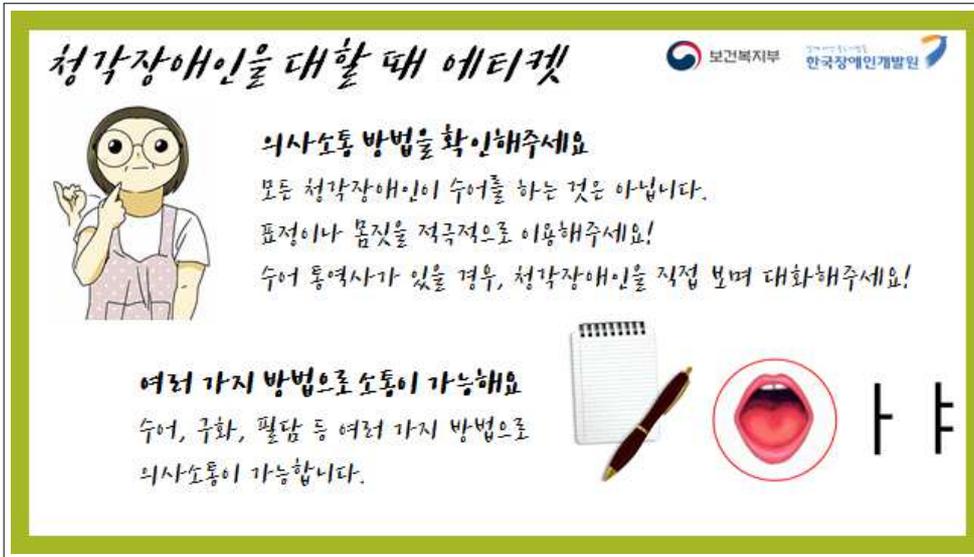
<전개>

장애 유형과 특성, 보조기기 및 에티켓을 소개한다.

<시나리오>

강의자: 청각장애는 소리와 말을 듣는 귀 즉 외이, 중이, 내이로 연결되어지는 청신경의 기능에 이상이 생겨 말과 음을 잘 듣지 못하는 장애입니다.

강의자: 청각장애인의 불편을 덜어주는 보조기기에는 보청기, 농아인 전용 화상전화기가 있으며 인공와우 시술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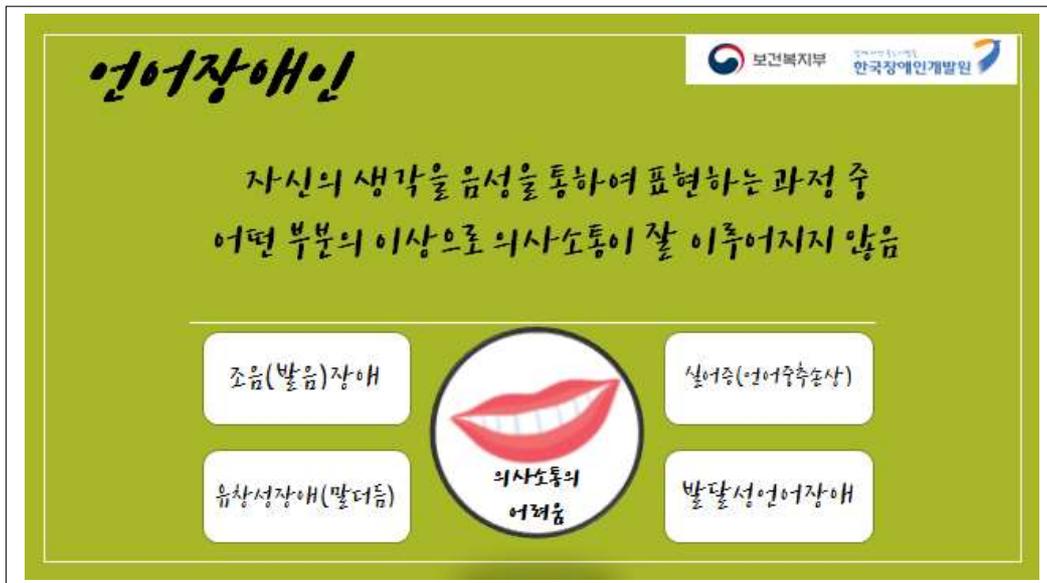
<전개>

장애 유형과 특성, 보조기기 및 에티켓을 소개한다.

<시나리오>

강의자: 모든 청각장애인이 수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청각장애인과 대화를 나눌 때에는 의사소통 방법을 확인해주세요. 표정이나 몸짓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수어 통역사가 있을 경우, 청각장애인을 직접 보며 대화해주세요.

또한 청각장애인과는 수화, 구화, 필담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답니다.



<전개>

장애 유형과 특성, 보조기기 및 에티켓을 소개한다.

<시나리오>

강의자: 언어장애인은 자신의 생각을 음성을 통하여 표현하는 과정 중 어떤 부분의 이상으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느끼는 언어장애에는 조음장애, 실어증, 유창성장애, 발달성언어장애가 있습니다.

언어장애인을 대할 때 에티켓 



대화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부분도 생각해주세요.
 언어장애 특성 상 말이 조금 느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얼굴, 표정, 비언어적인 부분들까지 주의를 기울여준다면 느린 대화일지라도 대화가 통할 거예요

천천히 끝까지 귀 기울여주세요
 언어장애인이 천천히 오랫동안 이야기 한다면, 고개를 끄덕이는 등 경청하며 기다려 준다면 자신감을 갖고 대화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전개>

장애 유형과 특성, 보조기기 및 에티켓을 소개한다.

<시나리오>

강의자: 언어장애 특성 상 말이 조금 느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얼굴, 표정, 비언어적인 부분들까지 주의를 기울여준다면 느린 대화일지라도 대화가 통하니 비언어적인 부분들도 세심하게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끝까지 귀 기울여주세요. 언어장애인이 천천히 오랫동안 이야기 한다면, 고개를 끄덕이는 등 경청하며 기다려 준다면 자신감을 갖고 대화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이하로 지적 능력이 불충분함. 하지만 적절한
교육과 반복 훈련을 통하여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가능

지적장애인을 대할 때 에티켓






인격과 의사를 존중해주세요
인지적인 능력이 낮아도 욕구를 알고, 표현이 가능하니
의사 존중이 필요합니다.

반복해서 알려주세요
이해도를 고려하여 쉬운 표현을 사용해주시고
반복하여 말씀해주세요.



<전개>

장애 유형과 특성, 보조기기 및 에티켓을 소개한다.

<시나리오>

강의자: 지적장애인은 지능지수가 70이하로 지적능력이 불충분한 장애인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교육과 반복 훈련을 통하여 얼마든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가능합니다.

지적장애인은 인지적인 능력이 낮아도 욕구를 알고, 의사표현이 가능하니 인격과 의사 존중을 해주세요. 특히 이해도를 고려하여 쉬운 표현을 사용해주시고 반복하여 말씀해주세요.

자폐성장애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생후 초기 3년 내에 나타나며 상호작용 결함과
 감각자극에 대한 특별한 반응을 보이는 반복적인 행동특성**

자폐성장애인을 대할 때 에티켓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충분히 설명해주세요

낯선 장소에 가거나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문제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폐성장애인에게 과한 신체적 접촉을 삼가하고 되도록 쉬운 단어 짧은 문장으로 대화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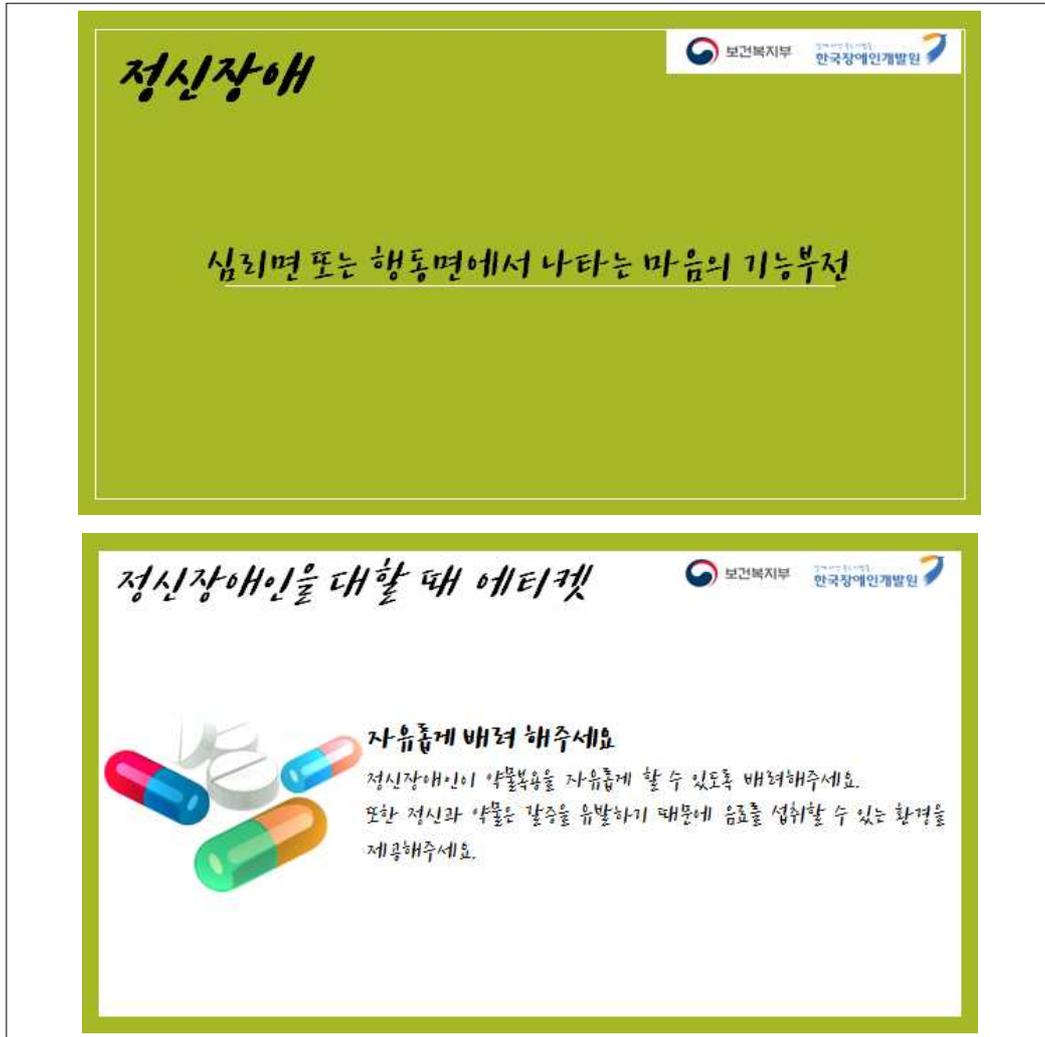
<전개>

장애 유형과 특성, 보조기기 및 에티켓을 소개한다.

<시나리오>

강의자: 자폐성장애는 상호작용 결함과 한 가지에 집착하며 특정 행동을 반복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사회성이 결여 되어 이름을 호명하여도 반응이 없거나 눈맞춤에 어려움이 있으며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이 비장애인보다 부족한 특성이 있습니다.

자폐성장애인은 낯선 장소에 가거나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예상치 못한 문제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예행연습을 함께 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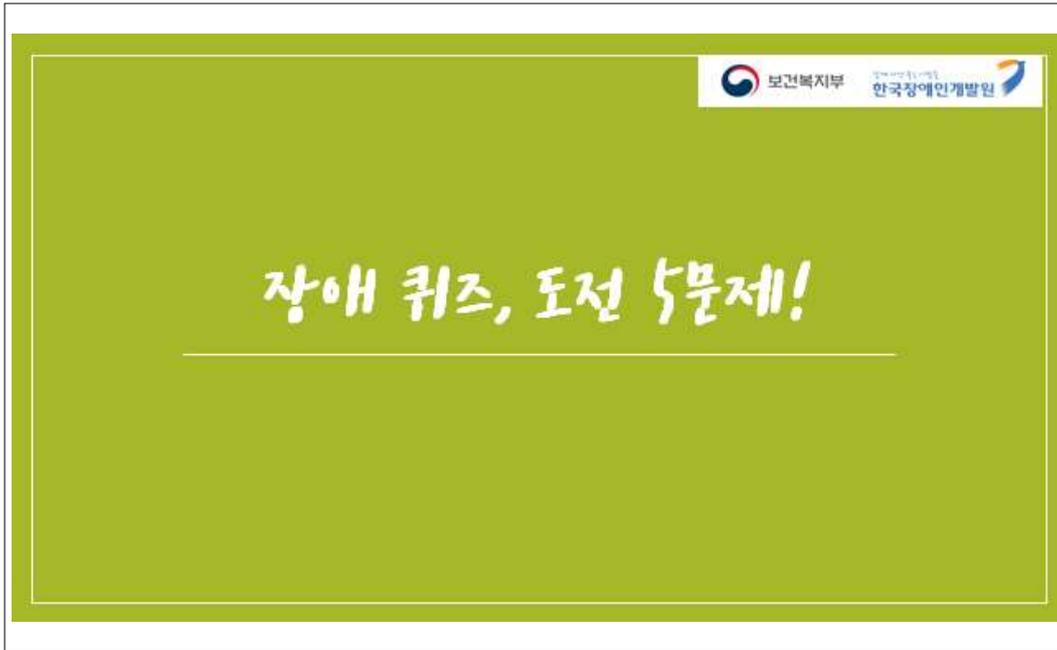
<전개>

장애 유형과 특성, 보조기기 및 에티켓을 소개한다.

<시나리오>

강의자: 정신장애인은 타인과 정서적 관계를 맺거나 의사소통을 하는데 있어 자기 방어적입니다. 의도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반면, 자기 통제력을 상실하여 눈에 띄는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정신장애인이 약물복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세요. 또한 정신과 약물은 갈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음료를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세요.



<심화>

퀴즈를 통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

피교육자가 장애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하다면 퀴즈를 통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설령 피교육자가 장애에 대해 알고 있더라도 교육 분위기 조성을 통해 효과적으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다.

<시나리오>

강의자: 장애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질문을 통해 교육 대상 자신이 장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 지 스스로 생각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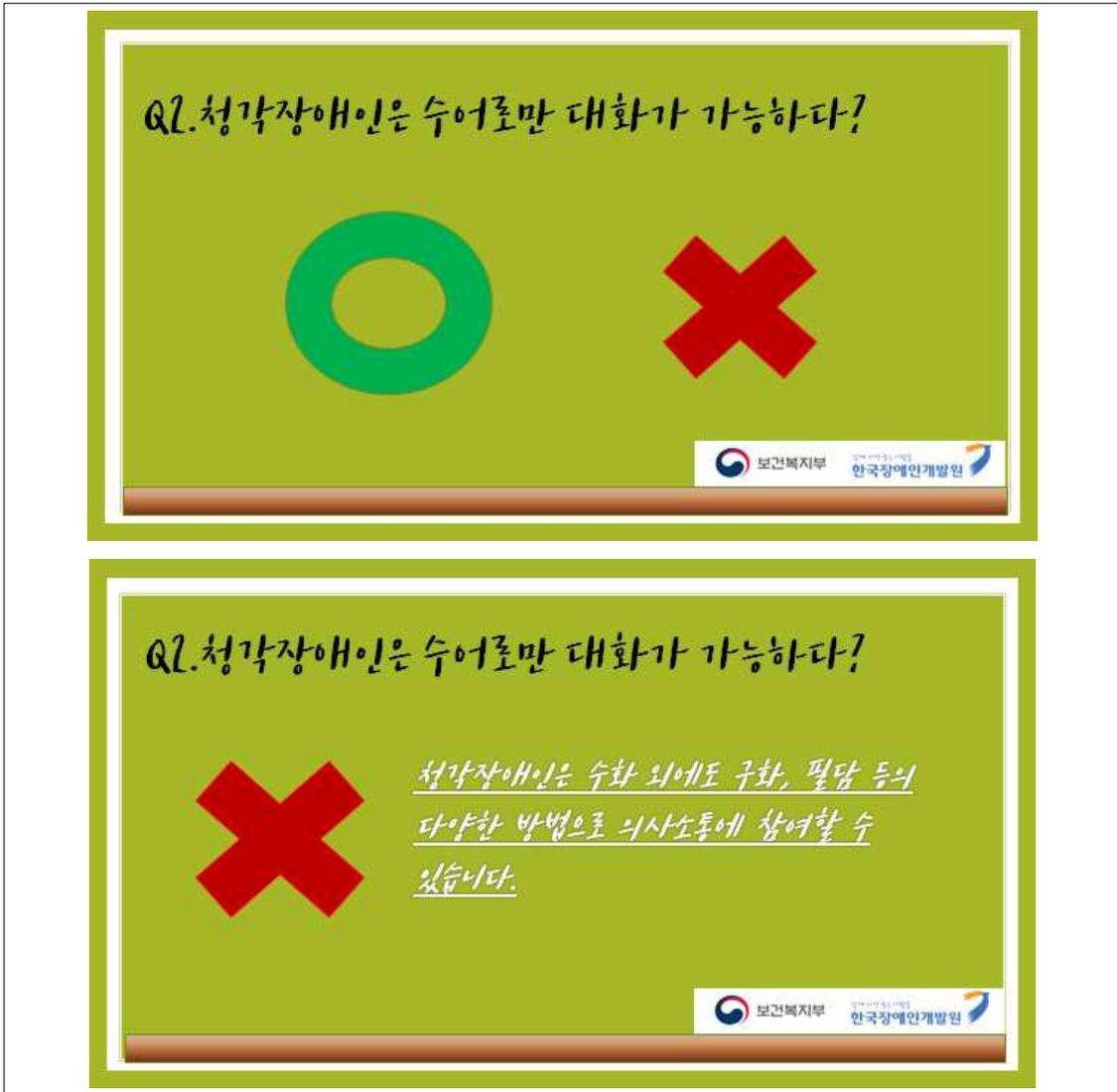
The image shows two quiz slides with a green background and a white border. The top slide asks 'Q1. 장애인은 선천적으로 생긴다?' (Q1. Are people with disabilities born with them?). It features a green circle on the left and a red 'X' on the right, indicating that the statement is false. The bottom slide asks the same question but features a red 'X' on the left and text on the right: '우리나라 252만명의 장애인 중 88.1%가 후천성 장애인입니다.' (Among 2.52 million people with disabilities in our country, 88.1% are acquired disabilities). Both slides include logos for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Korea Disability Development Institute.

<심화>

퀴즈를 통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
피교육자가 스스로 대답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시나리오>

강의자: 장애인은 선천적으로 생긴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답변 유도), (클릭하여 문제에 대한 정답 공개) 정답은 X입니다.
우리나라 252만명의 장애인 중 88.1%가 후천성 장애인입니다.



<심화>

-퀴즈를 통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

<시나리오>

강의자: 청각장애인은 수어로만 대화가 가능하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청각장애인은 수화 외에도 구화, 필담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소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Q3. 지적장애인은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까요?

장애가 있든 없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부정적이거나 거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심화>
퀴즈를 통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
질문을 통해 지적장애인을 아이큐가 낮은 사람이거나 또는 비장애인보다 감정적으로 훨씬 못 미칠 것이라는 생각을 사회적 고정관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준다.

<시나리오>
강의자: 지적장애인은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까요?
(답변 유도 및 호응)
강의자: 정답은 O입니다! 장애가 있든 없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부정적이거나 거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Q4. 뇌성마비 장애인은 지능이 낮을까요?






Q4. 뇌성마비 장애인은 지능이 낮을까요?



뇌성마비 장애인은 뇌의 한 부분의 이상으로
몸의 어느 부분이 불편하게 생활하는 사람,
그 중에는 말을 잘 못하거나 힘들게 겨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능과 관련된 부분에
손상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지능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심화>

퀴즈를 통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

질문을 통해 뇌성마비 장애인의 특성을 생각해보고 피교육자 자신이 뇌성마비 장애인의 걸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시나리오>

강의자: 뇌성마비 장애인은 지능이 낮을까요? 정답은 X입니다. 뇌성마비 장애인은 뇌의 한 부분의 이상으로 몸의 어느 부분이 불편하게 생활하는 사람, 그 중에는 말을 잘 못하거나 힘들게 겨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능과 관련돼 부분에 손상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지능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Q5. 국가·지방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고용 기업의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 ×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Q5. 국가·지방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고용 기업의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

국가·지방단체, 상시근로자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는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해야 하며, 미준수 시
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심화>

퀴즈를 통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

<시나리오>

강의자: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고용 기업의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사업주는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하며 미준수 시 부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 2019년 기준

국가·지방자치단체 : 전체 고용직원의 3.4% 이상 장애인 의무고용

민간기업(50인이상) : 전체 고용직원의 3.1% 이상 장애인 의무고용



<심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통한 장애인 인권에 대한 법적근거를 교육한다.

<시나리오>

강의자: 여러분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고 아시나요?

(답변 유도 및 호응)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장애라는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그러한 차별과 관련된 사람의 권리를 회복시킴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권을 실현하려는 법입니다. 그럼, 장애인차별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심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통한 장애인 인권에 대한 법적근거를 교육한다.

<시나리오>

강의자: 먼저 차별에는 어떤 차별이 있을까요?

(질문을 한 후 피교육자가 대답할 수 있도록 시간 부여)

강의자: 차별에는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이 있습니다.

직접차별이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차별일 것 같습니다. 장애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접차별이란 형식상으로 공정한 기준을 적용 하더라도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해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입니다.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편의 시설이나 장애를 고려한 서비스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광고에 의한 차별이란 광고의 내용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 배제, 분리 거부 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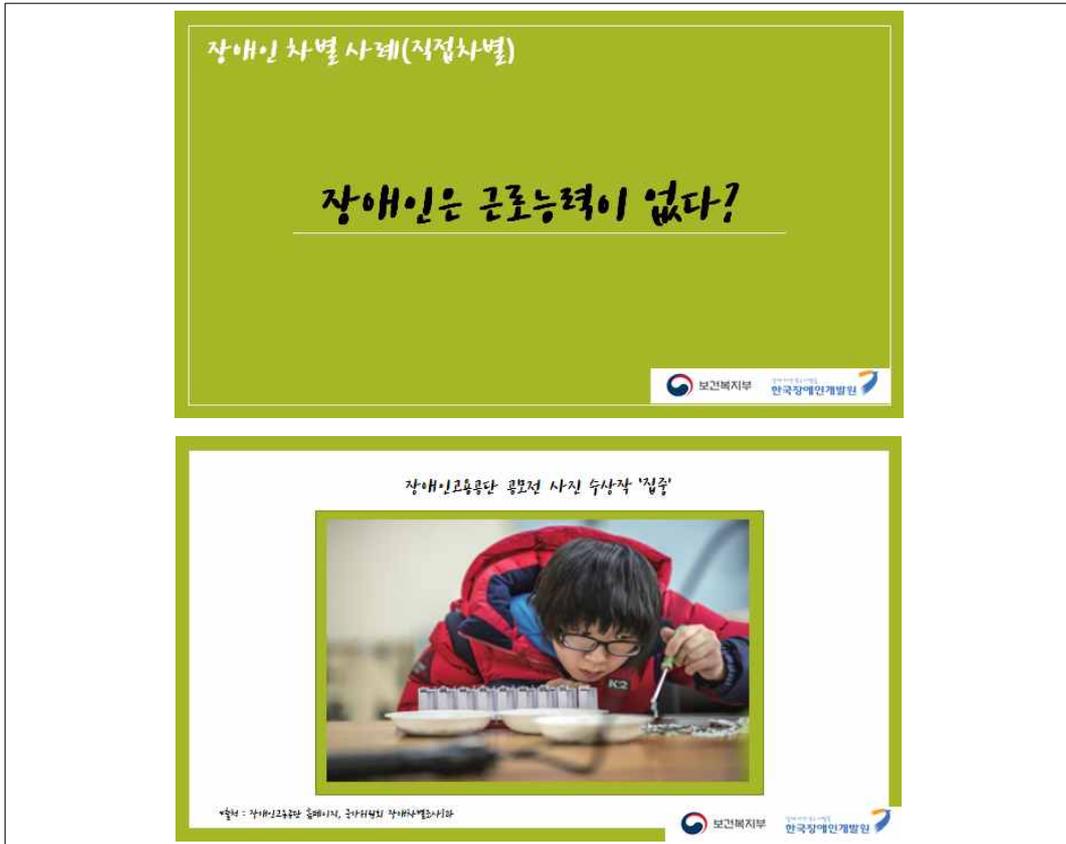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통한 장애인 인권에 대한 법적근거를 교육한다.

<시나리오>

강의자: 지금까지 차별에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차별금지에 대상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장애인이 있겠죠?

(피교육자가 대답할 시간 부여)

강의자: 장애인 보조견과 장애인 보조기구의 정당한 사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을 대리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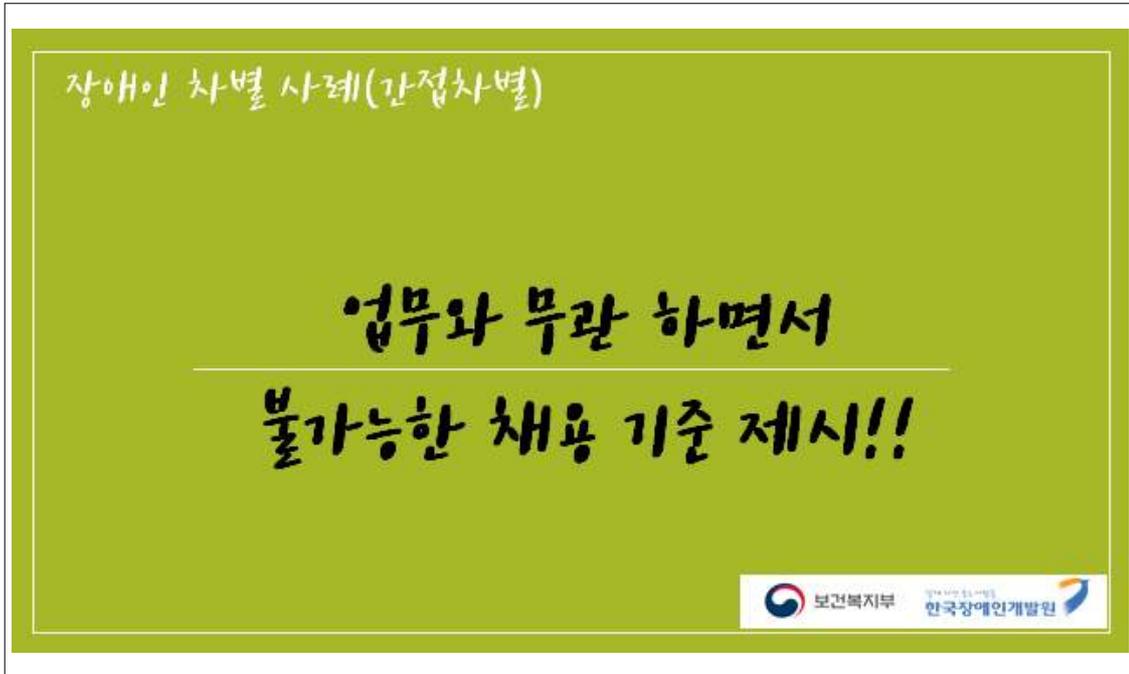
장애인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직접 차별)

<시나리오>

강의자 : 그럼 지금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 진정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다시 한 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없다’는 구체적 근거 없는 배제는 차별!입니다.

먼저 고용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고용차별여부의 핵심은 ‘업무 부적격’이란 말로 표현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사례를 장애로 인해 업무부적격이라는 구체적인 근거나 검증이 없었으며, 설혹 업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장애인 노동자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장비 등의 환경(정당한 편의)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이유로 차별로 판단하고 권리구제를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장애인고용공단 공모전 사진 수상작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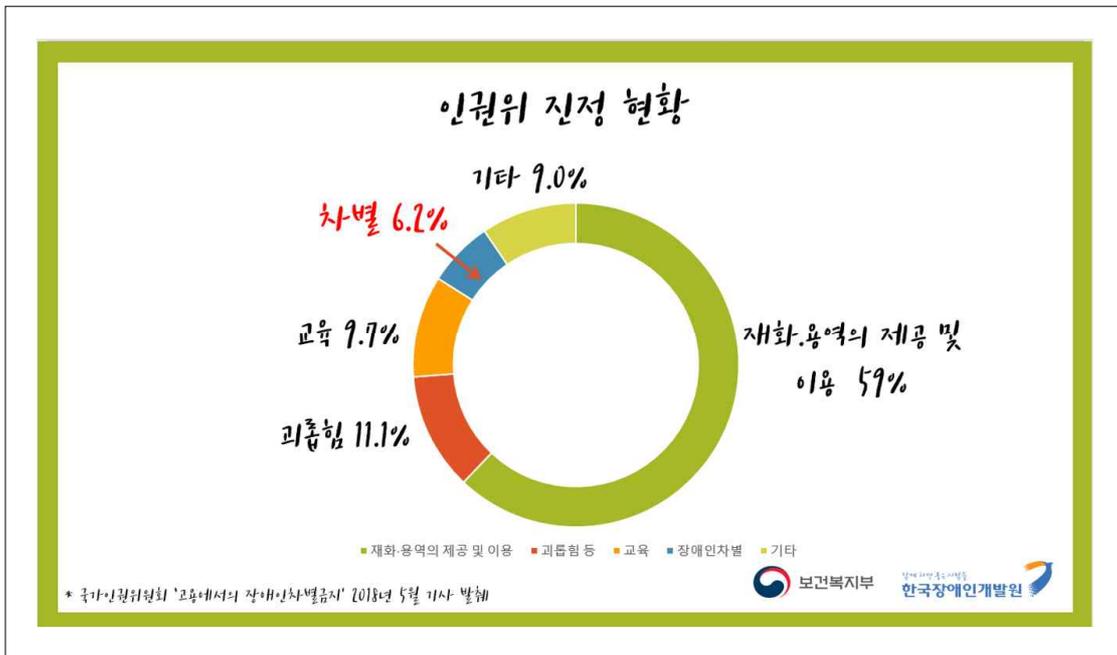
<심화>

장애인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간접 차별)

<시나리오>

강의자: 업무와 무관하면서 도달할 수 없는 채용기준 요구는 간접 차별!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장애인을 거부하지 아니하나, 의도적이든 의도하지 않든 장애인이 도달할 수 없는 채용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인을 배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가 신입사원 채용 시 영어 등의 공인인증점수를 요구하는데, 그 점수가 듣기 능력을 평가 받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 응시자에게 요구되는 경우입니다.

2010년,2014년에 발생한 두 사건 모두 청각장애인 응시자가 도달하기 어려운 공인인증점수가 요구되었다고 합니다. 차별행위를 한 기관들은 업무의 연관성을 주장했으나, 인권위는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어듣기능력이 필수적이지 않다고 보고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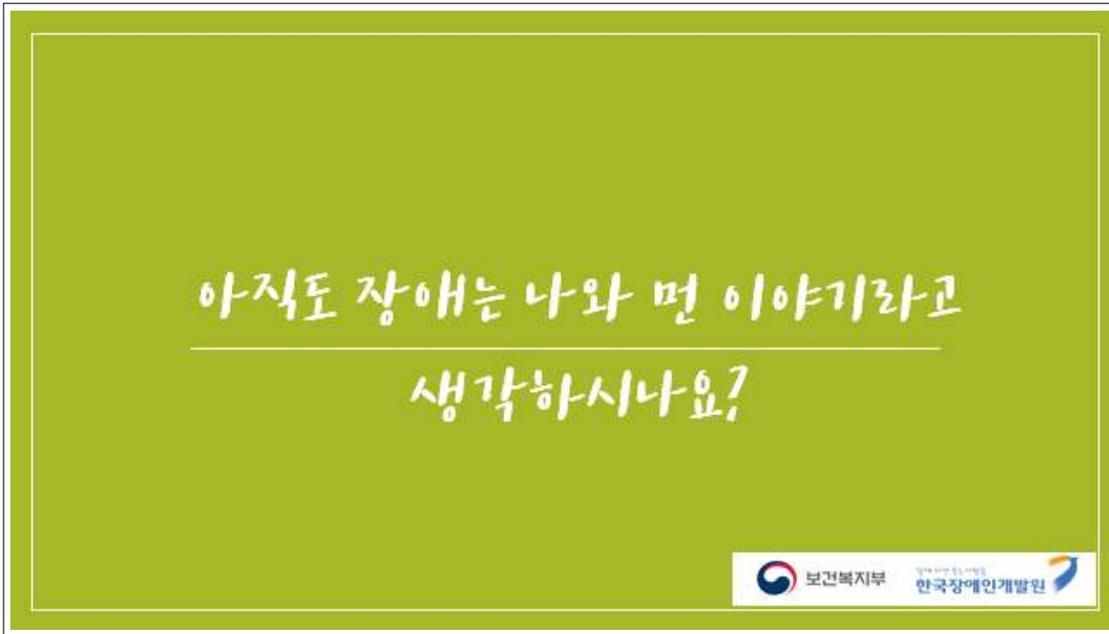
장애인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인권위 진정 현황)

<시나리오>

강의자 : 여러분~ 장애인 차별에 대해 우리는 큰소리를 내야합니다. 현재 인권위에 접수되는 장애인 차별 진정은 연간 천여 건 이상이 접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진정 중에 고용영역의 진정 건수는 총 713건으로 전체 사건에서 6.2%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 납니다.

그런데 고용영역의 진정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낮은 장애인 고용률에서 그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 장애인들이 고용시장에 진입 자체를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며 또 한 가지는 고용돼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혹시 그로 인해 인사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그것을 권리로 인정하고 있고, 그것이 침해됐을 때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당하게 요구 하고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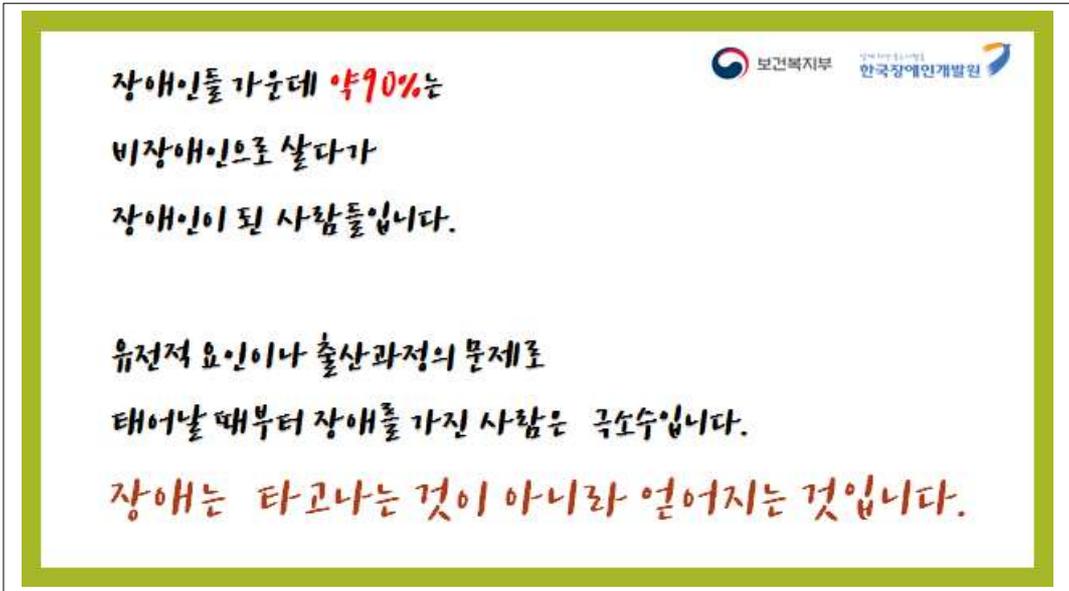
<마무리>

질문을 통해 교육생 스스로 장애인에 대한 생각을 확장하여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닌 '관계성'을 갖도록 한다.

<시나리오>

아직도 장애는 나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권리를 보존하고 발달시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루고자 하는 공통의 삶을 살아갑니다.



<마무리>

질문을 통해 교육생 스스로 장애인에 대한 생각을 확장하여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닌 '관계성'을 갖도록 한다.

<시나리오>

강의자: 우리는 장애인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상태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애인들 가운데 90%는 비장애인으로 살다가 장애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유전적 요인이나 출산과정의 문제로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장애인이 되기 쉬운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또는 질병으로 우리는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클릭 후 애니메이션이 내려오면서 아래 멘트 설명)

강의자: 장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얻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장애를 얻는다면'이라는 상황을 가정해보는 것은 장애인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이 될 것입니다.



<마무리>

질문을 통해 피교육자 스스로가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에 생각하게하며 교육의 주제를 부각 시킨다.

<시나리오>

강의자: 장애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답변 유도 후 하나씩 클릭하며 아래 멘트 설명)
 (클릭 후) 오르내리기 힘든 계단, (클릭 후) 신체적 손상, (클릭 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불편함 등의 신체적, 환경적 장애보다는 (클릭 후 장애를 향한 편견 애니메이션 등장과 함께 멘트) 장애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과 편견이 그들을 장애로 살아가게 힘들게 합니다.

강의자: 우리는 장애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편견을 가지게 됩니다. ‘불쌍한, 안쓰러운, 아픔, 지나치게 호의적인 태도, 동정심’ 이러한 생각들이 편견을 만듭니다.

편견에 가려지면 장애인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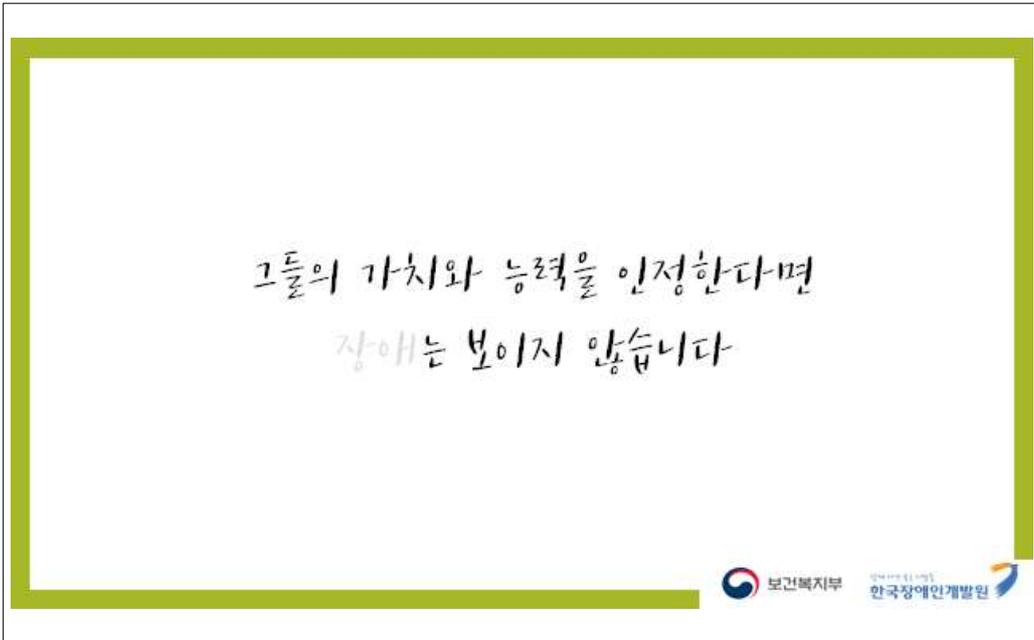
<마무리>

질문을 통해 피교육자 스스로가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에 생각하게하며 교육의 주제를 부각 시킨다.

<시나리오>

강의자: 끝으로 장애인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며 세상에 외치는 이야기를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영상 재생 1분 20초)

*영상: 직접편집



<마무리>

질문을 통해 피교육자 스스로가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에 생각하게하며 교육의 주제를 부각 시킨다.

<시나리오>

강의자: 그들의 가치와 능력을 인정한다면 더 이상 장애는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가족이자 친구이며, 우리의 소중한 이웃, 장애인이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 우리도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길 바라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8). 2018년 장애인보조공학기기 지원 안내서.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8). 직장 내 장애인인식 개선 교육.
- * 글로리아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GCIL(2014). 장애유형별 특성 이해와 섬김.
- * 임종호·이영미·이은미(2013). 장애인복지론(2판).
- * 주간조선(2018). '어느 날 내가 장애인이 된다면' 기사.
- * 러닝뱅크 법정의무교육(2018). 장애인인식개선교육.
- * 국립재활원 '2016년 보조기기 사용자들을 위한 선택 및 활용 안내서'
- * 함께걸음(2018.5) '고용에서의 장애인 차별금지' 국가인권위원회 기사.)

참고문헌

- 글로리아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GCIL(2014). 장애유형별 특성 이해와 섬김.
- 임종호·이영미·이은미(2013). 장애인복지론(2판).
- 주간조선(2018). '어느 날 내가 장애인이 된다면' 기사.
- 러닝뱅크 법정의무교육(2018). 장애인인식개선교육.
- 국립재활원 '2016년 보조기기 사용자들을 위한 선택 및 활용 안내서'
- 함께걸음(2018.5) '고용에서의 장애인 차별금지' 국가인권위원회 기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8). 2018년 장애인보조공학기기 지원 안내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8). 직장 내 장애인인식 개선 교육